

《황석영 중단편전집》 및 《황석영 희곡전집》 나와

탁월한 현실주의 작가의 40년 필력 집대성한 문학전집

1962년 단편 <입석부근>으로 《사상계》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 나온 황석영씨의 중단편과 희곡을 한데 모은 전집이 창작과비평사에서 나왔다.

《황석영 중단편전집》에는 등단작 <입석부근>부터 1988년에 발표된 <열애>에 이르기까지 총 20편의 작품을 담고 있다. 황석영 중단편은 빼어난 감수성과 세련된 묘사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당대 현실과 팽팽한 문학적 긴장을 유지한 뛰어난 현실주의 작품으로 평가받아 왔다. 문학평론가 진정석은 “황석영 문학은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위협하는 부당한 힘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의 기록”이라고 말하면서 “황석영의 소설은 한국인의 역동적인 근대 경험에 대한 가장 정직한 윤리적 동참이자,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치열한 예술적 탐색이다”고 평했다.

이번에 나온 중단편 전집의 두드러진 특징은 작품의 ‘결정본’을 확정했다는 점. 최초 발표본과 작품집 간행본을 기준으로 작가가 최종적으로

교정을 보는 과정을 거쳤다. 이 전집에는 작가가 직접 작성한 작가 연보, 기존에 펴낸 작품집 서문 및 후기, 작가의 작품을 분석한 비평목록 등을 실어 황석영 문학을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집 3권에 실린 <작품집 서문 및 후기> 모음에는 작품별로 소재를 얻게 된 계기를 밝히고 있어 흥미롭다. 예를 들면 <삼포 가는 길>은 조치원에서 청주까지 걸어갔던 경험을, <객지>는 신탄진 공사장 체험을, <돼지꿈>은 한 공단에서 보낸 공원생활을 바탕으로 했다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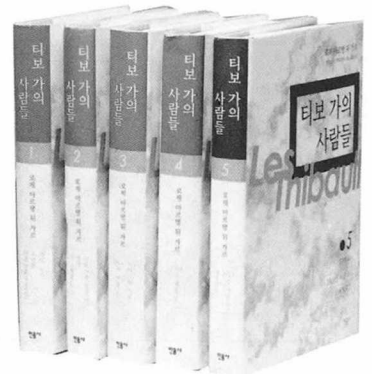
한편, 《황석영 희곡전집》에는 <장산꽃매> <한씨연대기> 등의 희곡과 단편영화 시나리오 <날랑 죽경 필에나 문영> 등 전체 12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이번 전집에 실린 작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뉘폴이>. 이 작품은 광주항쟁의 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82년 작가가 구성해 지하에서 제작 배포한 <자유 광주의 소리> 테이프 대본으로, 유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 실린 <님의 행진곡>은 작품 발표 이후 전국으로 퍼져나가 현장에서 가장 잘 불리는 운동가요가 됐다. - 이권우 기자

《티보 가의 사람들(전5권)》 완역 출간돼

1937년 노벨 문학상 받은 로제 마르탱 뒤 가르의 대표작

지난 1937년 로제 마르탱 뒤 가르에게 노벨문학상을 안겨줬던 《티보 가의 사람들(전5권)》이 서울대 불문과 정지영 교수의 번역으로 민음사에서 출간됐다. 원고지 2만여장, 총 2천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이 대작은, 예술의 중흥기인 ‘벨 에포크’에서 전란과 이념의 시대로 이행하는 20세기의 역사를 웅장하게 그려낸 거대한 벽화라는 평가를 받았다.

알베르 카뮈가 ‘최초의 앙가주망 소설’이라고 상찬한 《티보 가의 사람들》의 주인공은 자크와 앙투안느 형제. 자크는 저항적이지만 우유부단한 이상주의자고, 앙투안느는 의사라는 직업에 선민적 소명의식을 품고 있는 보수적 인물이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6부까지는 주로 두 형제의 인생편력을 다루고 있다. 7부 <1914년 여름>과 8부 <에필로그>는, 가족사의 테두리에 갇혀 있던 전반부와 달리 1차세계대전을 시대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인터내셔널의 대립,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의 대립을 비롯해 각종 동맹과 조약으로 얽힌 당시 유럽대륙의 정치적 난맥상이 엄중하고 증 아래 사실적으로 묘사됐고, 전란 속에서 피어나는 젊은이들의 사랑과 예술에 대한 열정도 그려졌다.



《티보 가의 사람들》은 신과 인간, 예술과 이념에 대한 성찰이라는 내용뿐 아니라, 그 독창적인 스타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시네마토그래피, 대화소설, 상호텍스트, 현실과 허구의 콜라주 기법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 “20세기를 대표하는 예술기법의 집적소”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완역본 출간은 무엇보다 20년 동안 번역작업에 매달려온 옮긴이의 노고 덕에 가능했다. 지난 1990년 10여년에 걸친 번역작업 끝에 청계연구소에서 펴냈던 번역본을 새롭게 다듬었고, 당시 누락됐던 8부 <에필로그>를 새로 번역해 완역본을 펴냈다. 각권 말미마다 옮긴이가 직접 쓴 작품해설과 5권에 실린 알베르 카뮈의 작가론은 이 ‘대하’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 더할 나위없이 유용한 ‘항해지도’ 역할을 하고 있다.

- 이권우 기자